

제29차 임시이사회 주요 의사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29일(목), 11:00~13:00
- 장 소 : 티원(서울 용산구 소재)
-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7명 중 7명 참석
- 참 석 자 : 김상헌 이사장, 고희경 이사, 김윤철 이사, 안호상 이사,
이상우 이사, 이영열 이사, 정재승 이사
- 특기사항 : 정광호 사무국장 직무대리(간사)

2. 보고사항

- 제28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처리 결과보고
- 국립극단 2017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3.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국립극단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안)
- 제2호 의안 : 국립극단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

4. 의결결과

- 제1호 의안 : 국립극단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안) - 원안가결
- 제2호 의안 : 국립극단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5. 기타사항

- 제29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

주요회의록

2017.06.29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명복 묵념>

이 사 장 : 안녕하십니까, 이사회 진행에 앞서 지난 16일에 별세하신 윤소정 이사님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성원보고>

이 사 장 : 그럼 국립극단 제29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7명 중 전원이 참석하셨고, 감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극단 제29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사항 2건, 심의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사항은 지난 28차 정기이사회 의사록과 의결 처리결과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28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설명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1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2017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쪽 “2017년 주요사업 실적” 설명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2호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신세계면세점의 후원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간 사 : 청소년 관객 관람지원을 위한 푸른티켓은 네이버에서 2억원, 신세계면세점에서 1억 6천만원 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동 야외광장의 시민 휴게공간은 신세계면세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 회 경 : 소외지역 순회공연 관련해서 국립극단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분담하십니까?

공연기획팀장 : 보통 작품 한 회당 8천만원을 집행하면 지방에서 5천만원, 극단에서 3천만원 정도를 분담을 합니다.

고 회 경 : 지방에서 국립단체 공연을 초청하려면 생각보다 공연료가 비쌉니다. 민간단체는 지방순회(투어)를 위해서 제작규모를 줄여 움직이는데 반해 국립단체는 공연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국립단체도 지방공연 수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여건이 실제 ‘소외지역 문화향유 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윤 철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공연료를 기준으로 작품을 초청하기보다는 국립극단 최고의 작품을 원합니다.

고 회 경 : 국립극단은 국가 지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얼마정도 예산을 분담해서 지방공연을 수행하는지 확인 차원에서 여쭙봤습니다. 그리고 국립단체에서 왔다 가면 관객의 눈높이가 확 높아집니다.

이 상 우 : 그러면 이번 5개 지역 순회공연은 지방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김 윤 철 : 네, 지방에서 요청을 받아 공연합니다. 문체부에서 지방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고 희 경 : 그리고 지방에서 공연을 초청할 때, 비용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로 극단 예산과 국립극단의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극단에서 좋은 작품을 많이 제작하는데 비해 적극적인 확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살림이 쉽지 않겠지만 전국순회를 구상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호 상 : 서울의 국공립 단체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어서 지방 문화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지방에 어울리는 작품이 있고 지방 공공극장이 시즌제를 도입하여 자체작품을 할당하고 초청 공연을 안배하면 모를까, 초청공연으로 인한 민간과의 경쟁 유발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윤 철 : 그리고 지방예술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입안이 필요합니다. 연극계에서 “지방에도 국립극단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활성화의 역할을 지방에만 두지 말고 경쟁력 있는 국립단체를 거점에 설립하여 연극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 호 상 : 올해 울산시에서 ‘처용무용제’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겠으니 작품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립무용단의 자체일정이나 울산시립무용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공동제작하기로 했고 울산에서도 국립무용단과 협업을 홍보로 삼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 사 장 : 국립극단이 우수연극을 제작하고 보급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과의 경쟁이나 지방과의 문화격차 등 애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보고사항 2호**를 접수하도록 하고 심의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안)입니다. 안건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8쪽,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경정(안)” 설명함

이 사 장 : 안건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 상 우 : 창작신작 <한국인의초상2>를 <미국아버지>로 대체한 배경이 있습니까?

간 사 : <한국인의초상2>는 장유정 연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연출을 맡으면서 그에 집중하고자 연출을 포기했고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민간극단 우수작인 <미국아버지>를 기획초청해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정 재 승 : 기획초청 할 수 있는 작품이 여럿 있었을 텐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국아버지>가 선정되었습니까?

김 윤 철 : <한국인의초상2>는 재기발랄한 장유정 연출가에게 의뢰를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형제는 용감했다>가 영화화되면서 이 작품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많지 않았고 첫 기획의도가 “한국의 여성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작품 주문”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의 사랑이야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 우리 의도와 맞지 않아, 작가와 합의하에 창작신작 제작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연극계에서 국립극단 무대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아 민간극단 우수작품 중에서 목록을 뽑은 뒤에 적합한 대체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아버지>처럼 한국인 작가가 세계적인 시각으로 극작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마침 기회가 되어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십이야>는 제작도 전에 유럽 6개국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연출가가 건강문제로 연출을 고사하였고 연말에 코미디 작품을 해왔으니 셰익스피어의 문제적 희극 <준대로 받은대로>로 작품을 변경하고 6개국 순회는 취소하였습니다.

정 재 승 : 장우재 선생의 작품이니 이견은 없습니다.

이 사 장 : 다른 이사님들도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체이사 : 네, 없습니다.

이 사 장 : 그렇다면 제1호 안건인 국립극단 2017년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안건입니다. 안건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5쪽,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설명함

이 영 열 : 퇴사율과 입사포기의 주요 원인이 연봉 문제인가요? 취직이 어려운 시대에 퇴사가 잦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간 사 : 먼저 입사포기의 원인은 정확하게 연봉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사율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 수치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윤 철 : 현재 극단이 너무 열악합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정 재 승 : 이번에 급여를 인상하면 다른 국립예술단체와 수준이 비슷해집니까?

간 사 : 3년이 지나면 유사해집니다.

고 희 경 : 그런데 정규직 말고 계약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안에서도 무기계약, 기간제근로, 단기근로 등 그 층위가 다양합니다.

안 호 상 :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15년 13명이 그만둔 것은 정규직을 포함한 것입니까?

정 광 호 : 정규직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15년에 3명이고 나머지가 계약직입니다.

안 호 상 : 그런데 계약직 기본연봉은 다른 곳보다 그 기준이 높습니다. 문체부 내에서도 계약직원 연봉지침이 있습니다.

간 사 : 현재 극단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봉하한을 맞추어 놓은 상태이고 임금 구조도 동일합니다.

안 호 상 : 네,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번에 연봉이 인상이 되면 다른 국립예술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 재 승 :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논리에서 “다른 예술기관보다 낮다” 이 점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절대액수만 봐도 연극에 몰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른 단체들도 우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 호 상 : 국립극단이 비정규직 임금을 현실화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수에 가까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미칠 반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임금 하한선이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 사 장 : 정리를 하면 정규직의 연봉하한선은 낮다. 그런데 계약직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 사 : 국립극단이 처음 독립할 때 정규직 8명, 계약직 21명이었고 명동예술극장이 정규직 19명, 계약직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때, 증원이 되어 정규직 35명, 계약직 21명으로 이후 각각 정원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사 장 : 현재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간 사 :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직무이지만 아시다시피 전체 인력을 기획재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호 상 : 계약직원 임금은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간 사 :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전 직원이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좀 전에 안호상 이사님께서 다른 곳보다 계약직원의 임금이 높다고 하셨습니다데요?

안 호 상 : 현재 6급과 계약직 하한이 같고 정규직은 승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생기지만 계약직은 승진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전환하는 것에 인건비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 장 : 그렇다면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를 계약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재 승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것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립극단이 정채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등하게 대우하시고 계약직이 필요하면 계약직을 선발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 장 : 그래서 임금 경쟁력을 갖추어서 발전적인 극단이 되고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말씀이시죠?

정 재 승 : 네, 맞습니다.

안 호 상 : 공연이 계절적 수요편차가 큰 상황에서 계약직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필요할 때 선발하면 좋지만 공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노동 구조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상 우 : 시즌단원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김 윤 철 : 작품 단위로 받습니다. 1년에 3편 계약을 하고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이 사 장 : 그리고 시즌단원은 사업비 계정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우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극단에 취업을 하면 기본급이 2천만원이 되면 너무 적기는 합니다.

안 호 상 :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계약직 생활을 몇 년 하여야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사 장 : 안건 자체가 일보된 안건이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인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외로 다른 토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이사: 없습니다.

이 사 장 : 이만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현	(인)	이 사	고희경	(인)
-----	-----	-----	-----	-----	-----

이 사	김윤철	(인)	이 사	안호상	(인)
-----	-----	-----	-----	-----	-----

이 사	이상우	(인)	이 사	이영열	(인)
-----	-----	-----	-----	-----	-----

이 사	정재승	(인)
-----	-----	-----